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11.13.(토)

보도자료

2010년 11월 13일(토)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
네트워크정보보호팀 구교영 사무관 (750-2755) eaglefree@kcc.go.kr

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관심→정상]

정부는 G20 정상회의(11월 11~12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0.11.13.(토) 09:00시를 기해, 사이버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는 G20 정상회의 개최라는 국가적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대비 차원에서 지난 11월1일 발령되었다.

※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09년 7.7. DDoS 공격 시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위협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DDoS 공격 등의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협력 체계를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정 기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PC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점검 및 최신 보안패치 설치 등의 보안을 생활화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끝.